

제목:원자력 발전소 폐지에 대한 통찰

원자력 정책에서 신뢰와 위험인식의 중요성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원자력 위험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시설은 대표적인 정책 갈등 영역으로, 대중의 의견은 원자력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78년 국내 처음으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면서 원자력 발전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40%를 넘어섰고, 원자력 발전의 관리기술은 급속히 향상되었다. 동시에 지난 30년 동안 원자력 관련 시설이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대중의 지지는 원자력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다. 위험의 다양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위험은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원자력의 위험인식에 대한 연구는 위험의 주관적 접근을 지향하는 심리측정패러다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원자력에 대한 위험인식은 사람들이 다양한 원자력 기술과 그에 수반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